

분과발표_문학/예술 2

기독교 선악과의 관점에서 바라 본 일본의 화(和) 문화

김동욱 (백석대학교 어문학부 교수)

머리말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행복의 근원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남자의 조상과 여자의 조상이 어느 먼 옛날에 한번 먹었다는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인류가 지금도 항상 선악과를 먹고 있다는 현재진행형이다. 성경은 인류가 행복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진 이유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선악의 분별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초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양날의 칼인 것이다.

일본 문화는 절대적인 선악을 따져서 가르기 보다는 절충과 화합(和)을 선호한다. ‘和’는 매우 일상적으로 폭넓게 ‘일본’을 상징하는 어휘이다. 우리들이 ‘일식(日食)’이라고 부르는 ‘일본 음식’을 일본인들은 ‘와쇼쿠(和食)’라고 부르며, 일본식 다다미 방은 ‘와시츠(和室)’라고, 중국에서 들어 온 한자어와 구별하여 일본 고유어를 ‘와고(和語)’라고, 일본 최초의 통일 국가는 큰 화합을 이룬 국가라고 하여 ‘야마토(大和)’라고 부른다.

“옳은가 그른가, 선인가 악인가?”를 우선하는 것을 ‘정의형’,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을 ‘화합형’이라고 정의하였을 때, 일본 문화는 전형적인 ‘화합형’이라고 볼 수 있다. “赤信号もみんなと一緒なら恐くない(빨간 신호등도 모두 함께라면 무섭지 않다.)”라는 일본 속담은 아마 한국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문화일 것이다. 옳고 그른 것(선악)보다 화합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영화배우 유오성이 출연했던 동원증권의 광고-“20여명의 다른 모든 직원이 등을 돌리고 ‘노’라고 부정하는데, 유오성 혼자서 ‘예스’라고 대답하는 광고.”는 일본 문화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이 있다. 화합보다 올바른 선택, 즉 정의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일본 사회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선악의 판단이 덜 중요시되는 사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를 넘은 적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비록 결론에 이르지는 못 하더라도, 끈임 없이 의문을 던지고 합리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일본의 종교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인의 종교관

일본 '화합형'문화는 종교 간의 충돌과 갈등 상황도 '和'의 문화를 바탕으로 절충과 타협으로 풀어나간다. 일본에는 미국 뉴욕처럼 911 테러를 일으키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도 노르웨이에서 청소년을 집단 학살하였던 기독교 원리주의자도 없다. 애초에 일본에는 종교 전쟁의 소지가 없다.

일본인의 종교관을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하는 농담이 있다. 어느 일본인이 한국에 1달간 체류하게 되었는데, 한국인 교회 장로님이 무료로 한 달간 숙식을 제공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기독교 전도를 하였다고 한다. 이후 일본으로 귀국한 일본인도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 한국인 장로님을 일본 집으로 초대했는데, 각종 불상과 우상들만 잔뜩 모셔져 있었다. 한국인 장로님은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고 했건만 아직도 우상이나 숭배하고 있단 말입니까?”라고 화를 내셨다. 일본인의 대답은 “죄송합니다. 귀국한 이후로 사업하느라 너무 바빠서 예수가 그렇게 좋은 ‘가미(神)’인 걸 깜빡 잊고 있었네요. 당장 내일부터 예수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일본인의 종교관에는 절대적인 ‘GOD(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가미(神)’를 배제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다.

기독교의 ‘GOD’와 신사의 ‘가미(神)’

일본에 불교가 전해지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고유 신앙을 통틀어 신도(神道)라고 한다. 이것은 ‘일본 서기13’에서 불교와 구별하는 뜻으로 쓰기 시작한 한자어이다. 기독교에서도 우주를 지배하는 절대자를 ‘GOD’라고 부르며, 이를 번역해서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프란체스코 자비에르가 일본에 기독교를 전했을 때 처음에는 ‘GOD’를 ‘다이니치(大日)’라고 번역했다. 진언종의 최고 지배자가 다이니치 여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이니치라는 번역이 불교와 혼동되었기 때문에 도중에 다이니치 대신에 ‘텐슈(天主)’라고 부르기도 했다. 일본 기독교에서 ‘신’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1859년 일본에 와서 가나가와에 살았던 헤본(1815~1911)일 것이다. 메이지¹⁴⁾ 초기 성서 번역에 종사한 위원들이 ‘GOD’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토론하다가 결말이 나지 않자 표결을 한 결과, ‘신’이 한 표 더 많았다. 그래서 일본 기독교에서도 ‘신’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이상경(1997년):p11>

메이지 시대 서양 서적을 번역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 ‘가미(神)’과 혼동을 피하려고, 어떤 사람은 ‘텐(天)’이라 번역하고, 또는 ‘조테이(上帝)’라던가 ‘마가미(眞神)’라고 번역했으며, 그 중에는 ‘텐노사마(天翁)’란 말을 만들어 낸 사람도 있었지만, 번역 성서가 일반적으로 쓰이게 됨에 따라 기독교에서도 ‘신’이란 말이 전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기독교의 신이 절대자이며 지배자인 것은 마치 목축민이 가축을 기르고 나서 죽이고 마는 사상과 같다. 일본에는 본래 이에 상응하는 개념은 없었으나, 일본의 ‘가미(神)’ 쪽에서 이 영향을 받아 절대자의 위치에 오르는 바람에 ‘가미(神)’란 말의 뜻이 옛날과 달라져 버렸다. 그러나 일본의 신사에는 여전히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가미(神)’가 모셔져 있다. 그 특색은 “모습이 보이지 않고 비상한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

13) 서기 720년경에 만들어진 일본 최초의 정식 역사서.

14) 명치(明治)시대 1868~1912

있다. 비상한 능력은 인간과는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대학교수와 학생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상경(1997년):p12>

이렇듯 ‘신도(神道)’는 일본 고유의 민속 신앙, 자연 숭배, 조상 숭배, 천황을 중심으로 국가 신도 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한국인들은 ‘신사’라고 하면 일제 강점기의 ‘신사 참배 강요’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천황을 신격화한 ‘국가 신도’만이 ‘신도(神道)’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신도(神道)’는 온갖 ‘잡신’들이 영역별로 전문 분업화되어 있는 민속 종교에서 출발하였다. 반쯤은 장난끼가 섞인 사례이긴 하지만, 아래 사진들과 같이 서양에서 ‘카스테라’가 들어 온 걸 기념하여 ‘카스테라 신사’를 만들어 놓고 장난삼아 賽錢箱¹⁵⁾에 돈을 넣고 참배를 하고나서 길흉을 점치고 행운을 기원하는 경우조차 있다.



15) 행운을 기원하며 작은 금액의 동전 등을 넣는 일종의 헌금함.





또한 살아 있는 동안에 어떤 특정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죽으면 신사에 ‘신’으로 모셔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일본에 술 담그는 비법을 전해 주었던 백제인 수수코리는 ‘사가 신사’에 ‘신’으로 모셔져 있다.¹⁶⁾

한국어에서는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장인’ ‘달인’ ‘도사’ 등으로 부르는 것을 최대한의 칭찬으로 여긴다. 이 정도의 극찬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사람’의 영역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반면 일본어에서는 특정 분야의 탁월한 능력자를 ‘~의 가미사마(神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지극히 권위 있는 언어학 교수는 ‘언어학의 가미사마(神様)’라고 극찬하기도 하는 것이다.¹⁷⁾ 이러한 사람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신사’에 모시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가미(神)’는 각각의 특정 분야마다 전문 분업화되어 있는 ‘전문의’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가미(神)’의 종교 문화를 바탕으로 살아 온 일본인들에게 현세구복적인 기독교를 권유하는 것은 다양한 진료과목이 갖추어진 종합병원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던 환자들에게 의대 학부과정만 졸업한 ‘일반의’ 진료를 억지 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다.

일본인들에게 유일하게 없는 것은 현세구복적이고 종교적 차원의 기독교가 아닌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난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다. 재단의 드러지는 어린 양을 보시고 자신에 비유하셨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다양한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두루 갖춘 일

16) 일본어로 술을 ‘사케(sake)’라고 하는데, 이는 ‘발효되다’를 의미하는 한국어 ‘삭다’의 ‘삭(sak)’에서 비롯되었다.

17)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수능의 신’과 같은 표현이 쓰이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표현이 없었고 최근에서야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서 원래 고유한 한국어 표현이 아니라 일본어투 표현이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본 종교에 없는 유일한 것일 것이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이름이 빛나도록 해달라는 종교는 일본도 넘치도록 두루 갖추고 있다. 일본에 없는 것은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좋으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도”일 것이다.

신도와 불교의 和

일본 불교는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천태종(天台宗)은 그 지역 수호신인 오오야마쿠이신을 함께 모시고, 진언종(眞言宗)도 지역신인 니후쓰히메신을 함께 모셨다. 일본 불교가 이질적인 토착 종교인 신도(神道)를 수용하는 이론적인 근거는 법화경(法華經)에 있다. 즉 영원불멸의 부처를 진신(眞身)으로 하고, 그 진신이 직접 다가갈 수 없는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부처가 가미(神)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법화경의 ‘여래수량품’에 나오는 내용이다. <노성환(1997):p174>

이것을 보다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일본 불교 특유의 본지수적설(本地垂迹說)인데, ‘가미(神)’를 부처의 가신(假神=垂迹)으로 보고 부처를 진신(眞身=本地)으로 본다. 그러므로 일반 민중이 가미(神)를 믿는 것은 곧 부처를 믿는 것이 되며, 또 부처를 믿는다는 것도 가미(神)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본지수적설에 근거하여 절 안에 신사가 세워지고, 신사의 경내 안에 불교 사찰이 세워졌다. 신사의 사제자와 불교 승려가 함께 거주하며 갖가지 의례를 공동으로 치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매월 1월 15일이면 나라(奈良)에서는 와카쿠사야마(若草山)라는 산의 일부분을 태우는 종교 의례가 있는데, 처음 불을 점화하는 의례를 카스가대사(春日大社)라는 신도의 사제자와 흥복사(興福寺) 승려가 공동으로 집전한다. <노성환(1989):p40>

또한 신사의 행사에 불교 승려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독경을 하기도 하고, 유력한 신사에서는 불교의 불살생계에 바탕을 둔 방생회(放生會)를 함께 하기도 한다. <村上重良(1981):p65>

한국 불교도 사찰에 용왕단이나 산신각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 불교의 ‘본지수적설’과 같은 튼튼한 이론적 근거까지 별도로 마련해 놓을 정도로 적극성을 띄지는 않는다. 일본 종교의 적극적인 절충과 타협은 섬나라라는 일본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반적인 전쟁은 현실적인 이해득실을 따져서 이득이 없을 것 같으면 6.25처럼 휴전을 하기도 하고 나아가 종전을 하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독일과 러시아의 전투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영토를 적에게 내어주고 일단 목숨부터 보전하기 위하여 작전상 후퇴를 하기도 한다. 반면에 종교 전쟁은 끝장을 볼 때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911테러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하기도 두려워하지 않기도 한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도, 오늘 당장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스티븐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설교에도 예외가 있는 것이다. 특히나 종교 전쟁 상황에서는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리길 주저하지 않고 순교를 두려워 않는 광신자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만약 도망갈 곳도 없이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에서 적들을 몰살시킬 때까지 순교도 불사하는 종교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 열도 전체가 자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본 종교의 적극적인 절충과 타협에는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이 관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기독교와 국가 신도의 和

일본 메이지 정부는 당초 신도(神道)를 국교화하려 했다가 종교계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하였다. 그러자 ‘제교분리(祭教分離)’라는 우회로를 선택한다. ‘제교분리’란 신도 의례를 ‘국가의 제사’로 만들어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와 달리 구별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나 기독교 등의 개인적인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한편, 신도 의례는 국가의 제사 의식이므로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일본 국민인 이상 제사 의식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신사 참배에 대하여 기독교계의 반발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애국 열사를 제사지내는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공적인 의무에 관련된 것이고, 각자의 사적인 신앙과는 별개의 것이다.”라는 절충안으로 타협하게 되었다. 이러한 절충은 일본 정부와 기독교인 쌍방에 이점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종교와 대립하지 않고 신도(神道)만을 “대일본 제국 신민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로서 강요할 수 있었다. 또한 기독교인은 신사참배를 국민으로서의 공적 의무로 수행하는 한, 국가와 대립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훈(2007):p373>

그러나 이러한 절충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기독교계가 점점 비기독교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1941년 일본 개신교 교회는 34개 교파가 합동으로 일본 기독교단을 설립하고 “우리는 기독교 신자임과 동시에 일본 신민이며, 황국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제일로 한다.” 라는 선언문을 공표한다. 이어 다음 해 일본 기독교단 대표인 도미타미쯔루(富田満)는 국가 신도의 본산인 이세신궁에 참배하며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에게 일본 기독교계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에 이른다. 기독교의 번영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일본 조상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이미 기독교라고 볼 수조차 없을 것이다. 전쟁 말기로 갈수록 이러한 변질도 정도를 더하여 갔는데, 패전을 1년 앞둔 1944년 일본기독교단신보는 한 대라도 더 많이 군용기 헌납에 동참할 것으로 호소하며 “헌납기에는 기독교단의 마크가 들어갈 것이다. 우리 기독교단의 헌납기로 미영의 전함이 격침되는 날을 기대한다.” 라고 선동하였다.

‘제교분리’로 신도(神道)가 ‘비종교(非宗教)’라고 했던 일본 제국주의 정권의 타협안은 사실상 신도(神道)를 다른 모든 종교 위에 군림하게 하려는 ‘초종교(超宗教)’ 정책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다. 일본 기독교인들은 국민의 공적 의무를 다하는 대가로 사적인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하였으나, 국가 제사와 종교의 분리는 모든 종교를 국가제사로 완전히 통합 흡수되게 하는 역설적인 결과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러한 주류 기독교단에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이 역시 교단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전면 대결이 아닌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 같은 저항으로 나타났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은 일본 최고의 지식인 계층이어서 성서 연구, 문서 전도, 강연 등의 형식으로 국가주의에 포섭된 기독교단을 비판하였다. 즉 주류 교단의 변질에 맞대응을 하기 보다는 기독교 신앙의 지적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和의 형태로 저항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전후에 동경대학 총장이 된 야나이하라 타다오(矢内原忠雄) 등의 지식인들이다. 국가 신도와 타협한 일본 기독교 주류의 변질이나 그에 저항하는 무교회주의의 성서 연구나 모두 극단적인 대결을 회피하는 和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맺음말

일본 특유의 화(和)의 문화를 바탕으로 종교적 절충과 타협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를 넘지 못 한다. 일부 학자들은 일본에서 기독교 전파가 실패한 이유로 근세 이후의 혹독하고 가혹했던 기독교 탄압 정책을 들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 탄압이 공통적으로 있었고, 역설적으로 무자비한 기독교 탄압이 기독교 전파의 촉진제가 되기도 하였기에 근본적인 이유로 보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기독교가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 한 근본 원인은 일본인의 사고방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는 일본인의 사유방식을 ‘정신적 잡거성’이라고 정의한다. ‘정신적 잡거성’의 사유방식을 통하여 상호 원리적으로 모순되는 것까지 무조건 포용하여 평화 공존시키는 사상적 관용의 전통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루야마 마사오는 이런 일본적 사유방식에 유일하게 예외적이었던 경우가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였다고 지적하였다.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는 일본인의 ‘정신적 잡거성’을 원리적으로 부정하는 특성이 있기에 일본인의 정신세계에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노성환(1989) “비교 관점에서 본 일본 불교와 사회”, 우리얼 우리 문화(6), 우리문화연구원
 노성환(1997) “젓가락 사이로 본 일본 문화”, 교보문고
 박규태(2001) “아마테라스에서 모노노케 히메까지”, 책세상문고
 박규태(2005) “상대와 절대로서의 일본”, 제이앤씨 출판사
 이상경(1997) “종교를 알아야 일본을 안다”, 철학과 현실사.
 이상훈(2007) “국가 신도와 기독교-일본인의 삶과 종교”, 제이앤씨 출판사
 이찬수(2009) “일본 정신”,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정형(2000) “일본인은 왜 종교가 없다고 하는가”, 예문서원
 최길성(1989) “일본의 종교”, 예전
 村上重良(1981) “日本宗教事典”, 講談社学術文庫